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9.19.~9.22.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려

-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선수 447명 참가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해 웹마스터, 목공예 등 정규직종 18개, 시범직종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8개 등 총 39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평균 경쟁률 8대1의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대회 수상을 통해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붙임3 참가선수 사례>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 (정규직종)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시범직종)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생활)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분들의 도전은 ‘성과’가 아닌 ‘성장’에 그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기업과 장애인근로자 목소리를 담아 ‘24년 장애인고용예산을 6.3%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23) 8,478억원 → ('24) 9,009억원(+531억, 6.3%↑)

[붙임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개요

[붙임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요

[붙임3] 참가선수 사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지형근 (044-202-7576)



붙임1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2023. 9. 19.(화) 16:30 ~ 17:30
- 장 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경북 경주시 보문로 507)
- 슬로건: 2023 Beautiful Challenge Gyeongbuk

□ 참석자 (약 500명)

- (주요 참석자) 장관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부교육감, 경주 부시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등
- (선수단) 선수 및 선수단 임원 등 450여명

□ 장관님 역할: 격려사 및 개회식 퍼포먼스

□ 행사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내빈 환담	16:15~16:25	10'	도착 및 환담	• HICO 2층(VIP실)
	16:25~16:30	5'	내빈입장	• 3층 개회식장 이동
본 행사	16:30~16:48	18'	① 개회 및 선수단기 입장	
	16:48~16:51	3'	② 내빈소개	• 장관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공단 이사장 등
	16:51~16:55	4'	③ 대회사	• 이사장(대회장)
	16:55~17:00	5'	④ 격려사	• 장관님
	17:00~17:04	4'	⑤ 환영사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17:04~17:10	6'	⑥ 축사(영상)	• 박정 환노위원장 → 김석기 의원 → 이 수진 의원 → 이종성 의원
	17:10~17:12	2'	⑦ 경기 개회선언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17:12~17:15	3'	⑧ 선수대표 선서(2명)	• 공단 이사장(대회장) • 선수대표(남·여)
	17:15~17:20	5'	⑨ 개회식 퍼포먼스 '터치버튼 세레모니'	• 장관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공단 이사장, 선수대표 2명 등
	17:20~17:30	10'	⑩ 축하공연 및 폐회	• 챌리스트 배범준, 민요자매

붙임2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요

□ 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23년 9월 19일(화) ~ 22일(금) / 4일간
- 개최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주최 :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 주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직종 : 총 39개 직종 (정규 18개, 시범 13개, 레저·생활기능 8개 직종)
- 슬로건 : 2023 Beautiful Challenge Gyeongbuk

구분		직종명
직업기능 (31개) 365명	정규 (18개) 214명	전산응용기계제도(CAD), CNC선반,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수리, 웹마스터,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뇌병변중증), 시각디자인, 전자출판, 점역교정(시각중증), 가구제작, 목공예, 귀금속공예, 나전칠기, 양복, 양장, 한복, 화훼장식
	시범 (13개) 151명	CNC밀링, 옥내제어, PCB설계, 3D프린팅, 자전거조립, 모바일앱개발, Word Processor, 영상콘텐츠제작, 캐릭터디자인, 건축제도CAD, 안마(시각중증), 바리스타, 제과제빵(발달)
레저및생활기술경기 (8개) 82명		그림, 네일아트, 한지공예, e-스포츠, 기기조립(발달), 데이터입력(발달), 바리스타(발달), 봉제(발달)

□ 시상 및 특전

- (시상) (정규) 금상 1,200만원, 은상 6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시범)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생활기능)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 * 비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금상 1,000만원 은상 600만원 동 4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 (특전) 입상자(금,은,동)는 입상한 날부터 2년간 해당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단, 해당직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직종별 금상, 은상, 동상 입상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 부여(단, 국제대회 개최직종에 한함)

□ 직종별 경기일정 ⇨ 전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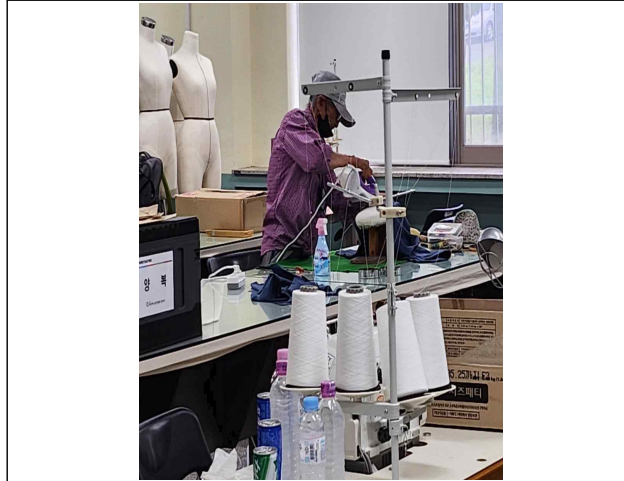
번호	구분	직종명	선수	시간	9.20(수)		9.21(목)		경장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	정규	전산응용기계제도(CAD)	11	5:00	09:30~12:30	13:30~15:30			HCO 3층
2	정규	CNC선반	7	5:00	09:00~12:00	13:00~15:00			신라공고
3	정규	컴퓨터프로그래밍	7	3:00	09:30~12:30				HCO 3층
4	정규	컴퓨터수리	17	3:20			09:30~12:50		HCO 1층
5	정규	웹마스터	5	5:00	10:00~12:00	13:00~16:00			HCO 3층
6	정규	컴퓨터활용능력	10	3:00			10:00~12:00	13:00~15:30	HCO 3층
7	정규	워드프로세서(뇌병변 중증)	11	1:20	10:00~11:20				HCO 3층
8	정규	시각디자인	14	6:00			09:30~11:30	12:30~16:30	HCO 3층
9	정규	전자출판	13	4:00	10:00~12:00	13:00~15:00			HCO 3층
10	정규	점역교정(시각중증)	17	2:00	14:00~16:00				HCO 205~206호
11	정규	가구제작	14	6:30	09:30~12:30	13:30~17:00			HCO 101~102호
12	정규	목공예	14	6:00			09:30~12:00	13:00~16:30	HCO 1층
13	정규	귀금속공예	6	6:30	09:30~12:00	13:00~17:00			HCO 104
14	정규	나전칠기	10	7:00	09:30~12:30	13:30~17:30			HCO 103호
15	정규	양복	13	6:00	09:30~12:30	13:30~16:30			HCO 1층
16	정규	양장	16	6:00			09:30~12:30	13:30~16:30	HCO 1층
17	정규	한복	12	7:00	09:30~12:30	13:30~17:30			HCO 1층
18	정규	화훼장식	17	5:00	09:30~11:30	12:30~15:30			HCO 1층
19	시범	CNC밀링	4	6:30	09:00~12:00	13:00~16:30			신라공고
20	시범	옥내제어	11	5:00			09:30~12:00	13:00~15:30	HCO 1층
21	시범	PCB설계	4	6:00	10:00~12:00	13:00~17:00			HCO 201호
22	시범	3D프린팅	15	5:00	10:00~12:00	13:00~16:00			HCO 3층
23	시범	자전거조립	15	5:00	09:30~12:00	13:00~15:30			HCO 1층
24	시범	모바일앱개발	7	3:30			10:00~11:30	12:30~14:30	HCO 3층
25	시범	Word Processor	14	1:30			10:00~11:30		HCO 3층
26	시범	영상콘텐츠제작	15	6:00	10:00~12:00	13:00~17:00			HCO 3층
27	시범	캐릭터디자인	13	6:00			09:30~11:30	12:30~16:30	HCO 3층
28	시범	건축제도CAD	11	6:00			09:30~11:30	12:30~16:30	HCO 3층
29	시범	안마(시각중증)	14	1:40			09:30~11:30	12:30~16:00	HCO 101~103호
30	시범	바리스타	17	0:25	09:30~12:00	13:00~15:00			HCO 1층
31	시범	제과제빵(발달)	11	5:00	09:30~11:30	12:30~15:30			HCO 1층
32	레저	그림	17	4:00			10:00~12:00	13:00~15:00	HCO 203~204호
33	레저	네일아트	14	3:00			09:30~12:30		HCO 1층
34	레저	한지공예	19	6:00	09:30~11:30	12:30~16:30			HCO 203~204호
35	레저	e-스포츠	16	5:00			10:00~12:30	13:30~16:00	HCO 3층
36	레저	기기조립(발달)	4	2:00			09:30~11:30		HCO 104호
37	레저	데이터입력(발달)	4	1:00	10:00~11:00				HCO 202호
38	레저	바리스타(발달)	4	0:25			09:30~11:30		HCO 1층
39	레저	봉제(발달)	4	2:00			09:30~11:30		HCO 1층

붙임3

참가선수 사례

<1>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최고령 참가자

박용삼(남, 1943년생) / 양복 / 지체장애 / 경북



금번 대회 참가선수 중 최고령자인 박용삼씨는 지금까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5번 출전하였지만 아직 수상은 하지 못했다. 그는 반복되는 입상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보고자 올해 6번째로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양복 종목에 도전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복에 대한 열정 불태워

그는 6.25 전쟁 때 친구와 길을 건너는 중 군용트럭에 치어 한쪽 다리를 잃는 장애를 입었고, 6살 이후 지금까지 목발을 의지해 지내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1962년 19살부터 문경에 있는 제일양복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청소부터 시작해 미싱을 배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주지는 않기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배워야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양복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힘들어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양복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노력했다. 하지만 기성복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양복점은 폐업하게 되었고, 그 역시 38년간 근무한 양복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전국대회 최고령자..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다

양복점을 그만둔 이후 그는 대구, 경북 지역 등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후로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폐지 줍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배운 양복 기술 덕분에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지방대회에서의 수상은 도전의 즐거움을 새롭게 일깨워줬다.

전국대회 참가자 중 최고 연령자인 그는 “나이가 있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며 “이번 전국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 제과제빵 기능인이 되기 위한 당찬 첫걸음을 내딛다!

황지우(남, 2007년생) / 제과제빵(발달) / 지적장애 / 전남



일찍부터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던 황지우씨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특수학교인 광양햇살학교에 입학하여 제과제빵 기술을 배웠다. 이후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1등을 수상하였고, 이제 최연소 참가자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의 진심과 응원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그에게 이번 전국대회는 첫 출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스스로의 성장에 보람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정진하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 뒤에는 힘들 때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 기술을 가르쳐주시는 김건혜, 제수연 선생님과 담임이신 임효기 선생님, 방과 후에 도와주신 강은주 선생님, 영암에서부터 오셔서 지도해주시는 박종록 선생님까지 황지우씨의 도전에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지금 대회 준비뿐만 아니라 기능 개발에 몰두할 수 있다”라며 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기능대회를 통해 전문 제과제빵인으로 거듭나고자

황지우씨는 이번 참가자 중 최연소이나, 포부만큼은 대단하다. 그는 대회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과제빵사로 취업하는 것이 꿈이다. 더 나아가 그는 “제과제빵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서 기능장애인으로서의 자립적인 삶이라는 당찬 꿈을 가진 그는 기능개발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다. 그의 열정적인 도전은 학교와 사회의 다른 후배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다

박장운(남, 1984년생) / 3D프린팅 / 뇌병변장애 / 전남



박장운씨는 “장애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느린 것 뿐이다”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사무 행정 보조업무를 맡아 근무했고 현재는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기계분야에 입학해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으며 재활에 집중했다. 재활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 이때 길렀던 끈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컴퓨터 활용, 솔리드웍스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퓨터 직종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기계분야에 입학해 3D프린터운용 기능사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배운 3D프린팅 기술은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이 생겼고 전국대회 출전도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었다. 그는 “이번 도전에서 입상을 하거나 금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술을 배우고 익혀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 등을 느끼는 것” 자체로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도미노를 쌓는 과정을 즐기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 폐업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식품가공분야에 도전하다

최수현(여, 1996년생) / 제과제빵(발달) / 지적장애 / 대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씩 무너져 나갈 때,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던 최수현 씨도 큰 어려움을 겪고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정들었던 가게를 정리하던 중 7년 전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듣던 날이 떠올랐고 그녀는 다시 한번 제과제빵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외식응용제빵과 입학, 제과제빵(발달) 직종에서 금메달 수상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식품가공분야에 재입학하여 제과제빵을 배우던 중 지방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케이크 디자인 쪽으로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방대회 참여를 결심했다.

처음으로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낯설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실습장에 혼자 남아 연습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제과제빵(발달)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녀는 대회 준비 기간을 돌이켜보며 “대회 참가 전에는 고된 연습 과정으로 심적인 여유도 없고 부담감에 대회를 포기하고 싶었으나,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자고 조언해주는 선생님 덕분에 끊임없이 노력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쟁취한 결과

지방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그는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서 금상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인 최수현씨의 꿈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5>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다

이윤숙(여, 1968년생) / 양장 / 지체 5급 / 경북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이윤숙씨는 자신감이 낮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 어려웠다. 당시 꿈은 많았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그런 그녀에게 바느질은 소소한 취미였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수업 수강, 양장 직종 재능 계발

그녀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직원의 방문을 계기로 평소 취미와 관련된 양장 수업에 등록하여 열심히 참여했다. 이후, 추천을 받아 2022년에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였고,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1년간 더욱 열심히 준비하였고, 다음 해 경북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상과 함께 되찾은 자존감

이 소식에 대해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이 상은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였다. 그녀는 수상 소감으로 “이를 계기로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세상이 섬세하면서 집중력이 필요한 바느질을 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봐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다며 대회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6>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바리스타가 되다

유진수(남, 2000년생) / 바리스타(발달) / 자폐성장애 / 경북



유진수씨는 (주)이노위드에서 만 2년 이상 바리스타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신이 내린 커피의 맛이 좋다고 칭찬하는 손님들에게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커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바리스타 전문가를 향한 도전, 첫 도전에서의 탈락을 성공의 발판으로

그는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중 단순히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라떼아트, 부드러운 크레마 추출 등 실무능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그에게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사업체 (주)이노위드와 협의를 거쳐 퇴근 후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을 제공하였다.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을 통해 바리스타 심화훈련 과정에 참여했던 그는 2022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직종에 출전했으나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는 탈락이라는 결과에 좌절하기보다는 대회에 함께 출전한 동료의 입상 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차년도 대회를 미리 준비하였고 2023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대회 준비를 통해 향상된 실력이 회사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라떼아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업무 전문역량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 가산점 획득을 위해 연습한 친절한 목소리, 표정 등은 우수한 서비스 태도로 이어져 소속된 회사 및 고객들로부터 더욱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두 차례의 대회 준비를 통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대회가 자신의 인생에 준 여러 깨달음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 수상자의 도전 사례 및 성공기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어 다른 훈련생 및 장애인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7>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맹솔찬(남, 1996년생) / CNC선반 / 청각장애 / 일산



청각장애인 맹솔찬씨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일반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에서도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거쳐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얼마 다니지 못하고 여러 회사를 전전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던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는 예전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져,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관심 분야를 찾은 후 삶의 희망과 원동력이 생겨

예전부터 프라모델 및 기계조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전공과는 무관한 분야인 기계 쪽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이를 계기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청각훈련처 기계분야에 입학한 그는 기계가공 기술자가 되기 위해 편도 1시간 이상의 장거리를 매일 통학하며 훈련에 전념하였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르는 것은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 간혹 질문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방과 후 시간에 남아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며 기술연마에 매진하였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참가를 결정하였다.

현재 그는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기계분야 선생님들과 대회 연습 계획을 수립하였고, 과년도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두려움을 끈기와 자신감으로 극복하다

늘 같은 자리에서 응원해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과 연습 결과가 좋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같은 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순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대한 조급함 보다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끈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생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